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사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2)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4-6)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가운데 사데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데 교회에 주신 주님의 교훈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1. 오늘날 사데 교회와 같은 경우

성령시대에 세워진 무수한 교회 가운데 사데 교회처럼 죽은 믿음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주의 종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양 때를 인도하는 목자가 먼저 참 믿음을 갖고 능력과 권세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가르쳐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단지 이론에 불과한 신학 지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므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마 15:14). 이러한 주의 종에게 기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리 없고, 교회 역시 성령의 불이 꺼져 성도의 영혼은 파리하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흥은커녕 그저 소수의 성도를 유지하며 명목상 교회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속마음과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산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는 신앙, 곧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하지 말라, 버리라.’하신 대로 불의, 불법 등 비진리를 벗어 버리고 ‘하라, 지키라.’하신 말씀대로 진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감으로써 성결한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2.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사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엄한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데 교회의 성도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 중에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므로 사데 교회가 칭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옷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뜻하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마음을 죄와 악으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또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써 진리를 알기 전에 더럽혔던 마음을 깨끗이 하여 다시는 비진리와 더러운 죄악을 묻히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깨어 기도하며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는 성도들이 사데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약속하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셨습니다(계 3:4).

물론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들이 온전한 성결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데 교회의 환경 속에서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데 교회 안에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신앙이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죄악에 물들고 세상과 짝하는 성도들뿐이니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밭과 그릇에 따라 각기 다르게 언단하시는데,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며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자라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므로 하늘나라에 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우·미리애]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말씀예배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